

청소년 시민과 함께
질문하는 정치교육
워크북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희망은 오래되고도 새로운 것이다.” - 파올로 프레이리 -

: 민주시민교육 결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촉진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연구, 교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본 교재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갈등과 정치,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생각과 가치를 키워가는
촉진제의 역할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청소년 시민과 함께 질문하는 정치교육 워크북





청소년시민과 함께 질문하는 정치교육 워크북을 펴내며

이 글을 보고 계실 선생님, 잠시 선생님 청소년 시기를 되돌아볼까요?
주변분들 통해 “좋아, 해봐!”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나요? 아니면 “안돼, 하지 마”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나요?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안돼, 하지 마”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럴 듯 한 이유가 덧붙여집니다.
“지금 참으면 나중에 실컷 할 수 있어”라고요..

몇 년 전, 청소년선거권 인하 운동 중 거리에서 만난 시민은
“어차피 스무 살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을 한 살 먼저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죽을 때까지 할 텐데 지금은 공부를 더 시켜야지..”라며 한참 목소리 높이셨지요.
또 한번 청소년 시기에 당연하게 유보되는 배움에 대해 생각해 보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참으면 다 할 수 있어!” 이제 믿지도 않을 이유가 잘 통하는 분야가 <청소년 정치 교육>입니다.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로 다뤄지곤 합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청소년도 대한민국 현대사 중요한 순간순간에 사회구성원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던 시민이라는 것
을요..

오랜 요구로 이뤄낸 만 18세 선거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도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 한 것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효능감은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경험은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학습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번 과정은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 <유권자 교육>이라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태도와 감수성’에 대한 학습을 <정치교육>이라 정의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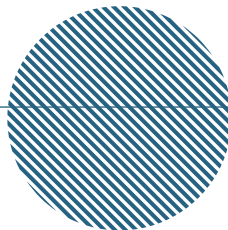
<정치교육>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생활 속에서 언어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치교육>이라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시민과 함께 질문하는 정치교육 워크북>은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고 있는 갈등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회피하기 보다 민주적으로 다루기 위한 질문으로 대화와 토론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 생각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공감하는 내면의 힘이 생겨나길 기대 해 봅니다.

현장에서 정치교육을 고민했던 기획위원들의 결과물인 이 워크북이 씨앗이 되어 다양한 배움의 공간에서 활용되고, 새로운 워크북으로 재구성되고, 청소년 정치교육이라는 말에 덧붙여진 선입견을 걷어낼 수 있도록 널리 퍼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템이 되는 배움이길 바랍니다.





1. 워크북 구성	5
------------------	---

2. 워크북 활용 가이드	6
----------------------	---

3. 주제별 내용	
1) 주제 1. <갈등, 난 이럴 때 어떻게?>	8
2) 주제 2. <나만 아니면 괜찮아?>	13
3) 주제 3. <불편함, 어디까지 참아야해?>	18
4) 주제 4.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	22
5) 주제 5. <그게 진짜 네꺼야? 너의 기본템은?>	27

4. 참고자료	
1) 용어설명 및 사례	30
2) 읽어보면 좋을 책	56
3) 동영상 자료 및 웹사이트 링크	57

5. Work Sheet	59
----------------------	----

청소년 시민과 함께 질문하는 정치교육



워크북 구성

1. 청소년 정치교육 주제 사회적 갈등, 어떻게 민주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2. 워크북 내용 구성 총 5개의 주제로 구성, 5개의 주제는 각각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순차별로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

NO	주제	교안명
1	갈등과 정치	갈등, 난 이럴 때 어떻게?
2	갈등을 대하는 나 -공동체 문제에 무관심-	나만 아니면 괜찮아?
3	다수와 소수의 갈등 -권리에 대한 인식-	불편함, 어디까지 참아야해?
4	젠더 갈등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
5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능력주의와 공정-	그게 진짜 네꺼야? 너의 기본템은?

3. 워크북 운영 방법 총 5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
주제별 교육 소요 시간 : 50분

[진행 tip] ★ 모든 교안은 기본 5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간 운영은 자율적으로 해도 무방

★ 워크북 활용가이드를 참고해서 진행

누구와 : 고등학생



워크북 활용 가이드

1. 교육할 때 이 점은 지켜주세요!

1) <결>의 청소년 정치교육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토론'과 '워크숍' 형태의 교안입니다. 이에 모든 교안은 청소년들과의 토론과 참여로 교육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가지 ①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② 논쟁성의 유지(수업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③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 원칙을 유념하여 진행합니다.

* <보이텔스바흐 합의>란 1976년 서독의 보수 및 진보 정치교육학자들이 토론 끝에 정립한 교육지침으로, >강제성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3) 본 정치교육의 큰 주제는 <갈등>입니다. 각자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진행자의 생각과도 전혀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시선에서 옳고 그름이나 맞고 틀림을 판단하는 말은 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되 타인의 상황과 입장,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2. 교안 활용은 이렇게 해주세요!

1) 본 교안은 총 5개의 교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등의 세부적인 주제들로 구성된 교안이기에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 관심 있거나 다루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2) 수업 시간은 기본적으로 50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1개의 교안으로 50분씩 2회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본 교안의 세부 진행 흐름에서 유의점입니다.

- 본 교안은 <여는 질문>, <교육>, <회고 질문>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여는 질문** : 여는 질문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주제를 알리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또 교육을 시작하기 전 주제에 대한 즉각적인 생각과 느낌을 확인하고 환기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깊이 있게 진행하기보다 15분 내외로 시간을 지켜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 : 교육은 각 교안에서 다룰 가장 중심적인 수업내용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충분히 교육 시간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시 정해진 교육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안에 따라 역할 분담과 조구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확인하여 참여자의 성향과 분위기에 맞춰서 교육 전 역할 분담이나 모둠 구성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 **회고 질문** : 회고 질문은 교육을 마치면서 교육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제와 진행된 교육내용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던지는 질문입니다. 또한 진행되는 교육 시간 안에서는 내 생각만을 고집하였는지 몰라도 회고 질문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안에 포함된 회고 질문은 모두 교육 시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고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주제를 깊이 있게 토론하고 싶다면 2차시에는 회고 질문만으로 토론수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 시간이 가능하다면 청소년들과 여는 질문과 교육으로 1차시, 회고 질문으로 2차시 교육을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4) <참고자료>는 주제별 교육 진행시 좀 더 활발하고 풍부한 토론을 위해 진행자가 사전에 읽어보면 좋을 용어에 대한 설명과 사례, 책, 참고 사이트와 동영상 등입니다. 자유롭게 교육에 반영하여 진행하셔도 좋으며, 진행자가 가진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례나 갈등에 대해 다양한 내용의 참고자료를 미리 참고한다면 좀 더 활발한 토론과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 난이럴 때 어떻게? (갈등과 정치)

목표

-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찾아보고, 내가 겪는 갈등을 사회적 갈등과 연결성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여는 질문
(15분)**

<질문으로 생각열기>

- ▶ 우리 사회 갈등은 무엇이 있을까?

**교육
(30분)**

<키워드 토론 >

- ▶ 다양한 갈등 들 중 나와 가장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한가지 선택하고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해본다.
- 키워드 토론 방법으로 여는 질문에 이어서 생각을 모으고 확장해간다.

<신호등 토론>

- ▶ 슬라이도와 신호등 토론을 통해 갈등에 대한 생각, 갈등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회고 질문
(5분)**

1. 갈등, 그래서 난 어떻게?
2. 좋은 정치 vs 나쁜 정치 / 내가 생각하는 나쁜 정치는?
3.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은?

참고자료

1. <용어설명> 갈등과 정치 : 정치란? 갈등이란? 30p

준비물

포스트잇, 매직, 키워드 토론 카드, 신호등 토론 카드, 신호등 토론 PPT or Work Sheet 1, 노트북, 인터넷, 휴대폰

이 주제의 중요 message!

갈등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갈등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1. 여는 질문

(15분)

- 1) 갈등, 난 이럴 때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갈등이 정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난 일상에서 어떤 갈등을 겪고 있으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임을 설명한다.
- 2) 포스트잇과 매직을 준비하고, 각자 다음의 질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써볼 수 있도록 한다. 개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쓴 다음 칠판에 나와서 붙일 수 있도록 한다.

[질문으로 생각열기]

우리 사회갈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뉴스에서 봤거나 일상에서 직접 겪은 갈등 중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예시)



2. 교육

(30분)

2-1. <키워드 토론>

▶ 여는 질문에 이어서 <키워드 토론>으로 생각을 모으고 확장해간다.

- 1) 모듈별로 <여는 질문>에서 나열된 사회갈등 중 나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개

의 카드를 선택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남녀갈등이 나의 일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남녀갈등 카드를 선택하여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 2) 모둠별 토론이 끝나면 전체가 모여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한 후,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갈등과 나와의 연결점>을 정리해 본다.
- 3) 모둠별로 나온 이야기 중 한 가지씩 전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2-2. <신호등 토론>

신호등 토론은 생각을 확장하고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4가지 색깔의 카드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1) “갈등”에 대한 각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slido*로 워드 클라우드를 해본다.
 - 내가 생각하는 갈등은 000이다! 단어로 표현한다.
 - 이 활동을 통해 서로가 생각하는 갈등의 이미지, 갈등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중립적 단어로 참여자들의 갈등에 대한 경향성을 알 수 있다.
- 2) 신호등 토론 순서대로 각각의 질문과 내용을 읽어주고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색깔 카드를 들고 의견을 이야기한다.
- 3) 신호등 토론 1은 전체 토론으로 진행, 신호등 토론 2,3은 모둠별 토론으로 진행한다.

* 슬라이도 : slido.com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링크를 보내 접속한 후 각자의 생각을 기입하면 한 화면에서 모여져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쓴 단어가 커지는 등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참여자 모두의 생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엔 포스트잇에 단어를 써서 붙여도 무방합니다.

[전체토론]

신호등 토론 1





갈등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생각은?

-  (파랑)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빨강) 매우 불편하고 싫은 느낌
-  (노랑) 나와 관계된 것이 아니면 별 느낌 없음
-  (초록) 기타, 집이나 교실, 학교 모든 갈등이 불편하고 무섭다 등

[모둠별 토론]





신호등 토론 2

갈등이 있을 때 주로 나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파랑) 주로 내 의견을 관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빨강) 관계를 생각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거나 회피하게 된다
-  (노랑) 중간 지점의 해결책을 생각하고 중재하려 한다
-  (초록) 기타,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한다

신호등 토론 3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파랑)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입하고 노력해야 한다
-  (빨강) 시민들 각자 해결하도록 둔다
-  (노랑)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론장이나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한다
-  (초록) 기타, 갈등이 심할 때만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 등

3. 마무리 <회고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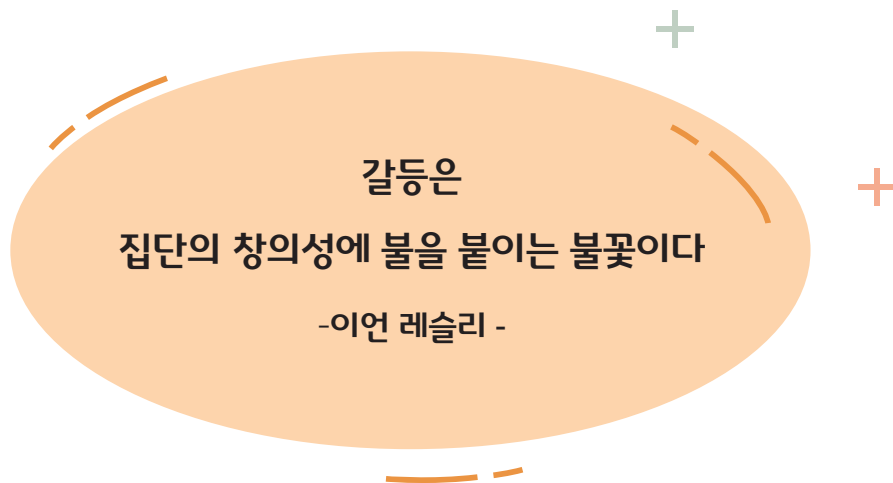
(5분)

- ▶ 갈등과 정치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회고할 수 있는 질문을 나누고 마친다. 아래의 질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교육내용을 회고해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행 tip] ★ 시간이 부족하다면 질문을 제시하고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마쳐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롭다면 10분간 질문 한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모둠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1. 갈등, 그래서 난 어떻게?
2. 좋은 정치 vs 나쁜 정치 / 내가 생각하는 나쁜 정치는?
3.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은?



나만 아니면 괜찮아? (공동체 문제에 무관심한 우리)

목표

- 갈등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질문과 역할극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공동체 내에 있는 갈등이 당장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나의 관심과 참여로 바뀌어나갈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여는 질문
(15분)**

- <질문으로 생각열기>
- ▶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교육
(30분)**

- <즉흥극 만들어보기>
- ▶ 즉흥극 구성으로 공동체의 문제와 갈등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 인식해보기
 -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고 사례의 역할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즉흥극을 진행해본다.
 - ▶ 활동 소감 나누기
 - 즉흥극을 해본 소감을 나눠본다.

**회고 질문
(5분)**

1. 타인이나 공동체 갈등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있다면?
 2. 공동체(교실, 학교, 사회 등)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왜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될까?
 3.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해야 할까?
- <함께 읽는 시> -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

참고자료

1. <용어설명>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악의 평범성, 사회적 자본, 속의 민주주의 - 다수가 늘 옳은 것일까? 33p
2. <사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36p
3. 학자들은 협력이 어려운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37p
4. <동영상 자료> 세상을 바꾸는 티핑 포인트 “ [테드] 운동이 시작되는 방법 ”

준비물

포스트잇, 매직, 역할극 사례 설명, 함께 읽는 시 PPT, Work Sheet 2-1,2-2

이 주제의 중요 message!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
공동체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곧 시민이다!

<질문으로 생각열기>**▶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포스트잇의 내용을 쭉 함께 살펴보고 이 중 가장 눈에 띄거나 궁금한 내용의 포스트잇을 쓴 참여자에게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의견을 들어본다.

- 1) 오늘 교육의 주제는 공동체의 문제나 내부의 갈등에 무관심한 자신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는 질문으로 먼저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본다.
- 2)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000다!” 는 질문에 각자 포스트잇 한 장에 한가지씩 적을 수 있도록 한다. 다 적은 포스트잇은 칠판이나 가운데 바닥 등 다같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인다.
- 3) 포스트잇의 내용을 쭉 함께 살펴보고 이 중 가장 눈에 띄거나 궁금한 내용의 포스트잇을 쓴 참여자에게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의견을 들어본다.

<즉흥극 만들어보기>

- 1) 교실의 학생들을 2개 모둠으로 구성한다. (대략 모둠별로 10명~12명 내외)

[진행 tip] ★ 사례마다 10명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인원수에 따라 추종하는 친구와 방관자를 늘리면 된다.

- 2) 아래의 사례 중 하나를 택하여 각 모둠별로 사례와 역할이 주어진 쪽지를 전달한다. 역할은 뽑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진행 tip] ★ 사례를 선택할 때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례를 선택하여 진행, 동일한 사례를 주고 즉흥극을 구성해볼 수 있도록 하면 조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교육 당시 이슈가 되는 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만들어서 진행해도 무방하다. 단 너무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진 사례보다 가해자, 추종자, 피해자, 방관자 등의 역할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대략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청소년 입장과 생각을 담아낼 수 있다.

3) 같은 역할을 맡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응을 논의하는 시간을 준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가해자끼리, 방관하는 친구는 방관하는 친구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 즉흥극에서 어떤 말과 태도, 전략으로 대응할지 회의하는 시간을 준다. 각자 자신이 그 역할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4) 모듈별 주어진 역할로 즉흥극을 구성해본다.

5) 즉흥극 진행! Work Sheet 2-1,2-2

1 사례

한 친구가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각자가 맡은 역할로 즉흥극을 해본다.

이때 역할별 쪽지에는 (가해자, 가해자를 추종하는 친구 1,2,3, 방관하는 친구 1,2,3,4, 피해자 1, 선생님)



2 사례

친한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는 사장님으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일한만큼의 알바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할까?

(사장님, 친구, 나, 가게 다른 아르바이트생 1,2, 친구 1,2, 부모님, 학교 선생님, 시청직원 등)



6) 즉흥극이 끝난 후의 느낌을 나눈다.

- 가해자가 되었을 때 나의 느낌은?
- 피해자 역할을 했을 때 가장 화가 나는 대상은 누구였나? 방관자들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나?
-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 내가 맡은 역할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었는지?

3. 마무리 <회고 질문>

(5분)

☞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회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마친다. 본 주제의 회고 시간은 <회고 질문> 중 한 개의 질문을 선택하여 교육내용을 회고해보고 정리하거나 <함께 읽는 시>를 함께 읽는 것 두 가지 중 선택하여 진행한다.



회고
질문

1. 타인이나 공동체 갈등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있다면?
2. 공동체(교실, 학교, 사회 등)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왜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될까?
3.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해야 할까?

의견 대립을 잘 풀어가려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언 레슬리 -

[함께 읽는 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그림1) 사진 출처 : <https://m.blog.naver.com/owl6615/221096559050>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틴 니묄러

불편함, 어디까지 참아야 해? (권리에 대한 인식)

목표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저항의 방법들이 때로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를 활용하여 “권리” 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공동체에서 시민들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다양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간 갈등이 생겼을 때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여는 질문
(15분)**

<찬반토론으로 생각열기>

- ▶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학교 급식노동자 파업이나 지하철, 버스 노조등의 파업은 이기적이고 나쁜 행동이다. VS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30분)**

- ▶ 내가 기자라면? 기사 작성해보기
 - 전장연* 지하철 집회 사진을 보고 직접 기사를 작성해본다.
 -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전장연 집회를 보고,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 뉴스 기사 라운딩 - 모둠별로 작성한 기사를 함께 둘러보기
- ▶ 느낌 나누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줄임말

**회고 질문
(5분)**

1. 소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다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까?
2. 장애인들은 왜? 출퇴근시간 지하철역에서 집회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3. 서로가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갈등이 심화될 때 정치의 역할은 무엇일까?

참고자료

1. <용어설명> : 인권과 시민권, 프레임(세상을 보는 렌즈) 40p
2. <사례 1> : 미국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례 41p
3. <사례 2> : 광화문 횡단보도 복원 - 차가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42p

준비물

전장연 지하철 집회 사진 PPT, Work Sheet 3

이 주제의 중요 message!

우리가 현재 누리는 권리는 과거 누군가 노력의 산물이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작은 불편함이 누군가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1. 여는 질문

(15분)

<찬반토론>

- 1) 각자 자신이 찬성하는 쪽의 의견에 모인다.
- 2) 파업은 이기적이고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오른쪽, 당연한 권리이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왼쪽으로 모이게 한다.
- 3) 왜 이 의견에 동의하였는지 이유를 말할 친구 몇 명이 발표할 수 있게 한다.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학교 급식노동자 파업이나
지하철, 버스 노조 등의 파업은
이기적이고 나쁜 행동이다.

VS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

(30분)

▶ 내가 기자라면? 기사 작성해보기 (기사양식 Work Sheet 3)

☞ 내가 기자라면? 이 사진을 보고 기사를 어떻게 쓸까?




출처 : 2023.12. 시사포커스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328>

- 1) 모듈별로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할지 토론하도록 한다.
- 2) 기사 제목(헤드라인)과 내용(100자 내외)로 작성할 수 있는 기사 양식을 주고 쓰도록 한다.
 - ▶ 뉴스 라운딩 : 각 조별로 만든 뉴스를 전시하고 둘러본다.

▶ 나누기

- 1) 뉴스 제목만 뽑아서 보여준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나눠보고, 뉴스의 제목만으로도 시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 2) 그리고 다시 “여러분이 작성한 기사의 제목을 볼까요? 어떤 느낌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 3) 기사를 작성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또 사진만 보았을 때와 직접 기사를 작성했을 때 느꼈던 점은 무엇인가요? 나도 모르게 가진 편견이 기사에 반영되진 않았나요? 기사를 작성해보고 다른 친구들이 작성한 기사를 읽어보면서 느낀점은?” 등을 나눈다.



[(예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한 기사 제목들]

<p>철도파업에 전장연 시위까지 혼란의 월요일 출근길</p> <p>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냉담한 시민들</p> <p>전장연 시위 재개, 더 싸늘해진 민심, 공감 어렵다.</p> <p>시민들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묻게 한 지하철 민폐 시위 1년</p> <p>지하철도 모자라 버스까지 막은 전장연, 시민 불편 호소 가중</p>	<p>22년 외쳤지만 장애인 이동권 해결 안돼 교통약자 탓 대신 불편 해소 해줘야,</p> <p>새정부가 보여줄 장애인의 달라질 일상은?</p> <p>모두를 위한 자유로운 이동권, 정순택 대주교 전장연 면담</p> <p>장애인 이동 남이 아닌 우리의 문제 “같이 삽시다!”</p>
--	--

3. 마무리 <회고 질문>

(5분)

☞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회고할 수 있는 질문을 나누고 마친다. 아래의 질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교육내용을 회고해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소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다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까?
2. 장애인들은 왜? 출퇴근시간 지하철역에서 집회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3. 서로가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갈등이 심화될 때 정치의 역할은 무엇일까?

<정치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함께 모여 토론과 합의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일상생활 곳곳에 정치가 있어요.

학급 회의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토론회도 모두 정치활동이에요.

- 출처 : 10대들이 궁금한 민주주의 질문 사전 13p,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젠더 갈등) *

목표

- ‘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표현해보면서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가졌던 성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 서로의 차이와 다름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 교육콘텐츠출처:IMAGINE
하이라이트 워크숍 중 (젠더
교육플랫폼호재)

**여는 질문
(15분)**

<마음 열기>

- ▶ 상호 인터뷰
 - 두명 씩 짝을 지어 오늘 교육에 대한 기대 나눔과 소개
 - ▶ 닳은 꼴 찾기 “~한 사람”
 - 의자로만 원을 만들어서 자리 바꾸는 게임,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본다.

**교육
(30분)**

- ▶ 단어 이어 쓰기
 - 남성 성, 여성 성 이라고 적힌 종이를 보고 생각나는 단어를 릴레이처럼 쓴다.
 -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적 단어를 알아본다.
- ▶ 우리들의 약속 만들기 Work Sheet 4
 - 성차별과 혐오가 없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을 만든다.

**회고 질문
(5분)**

1. 내가 가진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긴것일까?
2. 성별에 관련된 혐오표현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실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참고자료

1. <용어설명> : 교차성(intersectionality), 적극적 우대 조치,혐오표현 43p
2. <사례> : 프랑스 히잡 금지 사례 - 다양성 존중인가? 소수 종교 차별인가? 45p

준비물

전자, 매직, Work Sheet 4

이 주제의 중요 message!

혐오는 서로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편견은 갈등을 만들고, 혐오는 갈등을 부추겨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마음까지 닫게 한다.

[진행 tip] ★ 서로 처음 만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교육에서는 <상호 인터뷰>와 <똥은 꿀 찾기> 를 모두 진행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나 동아리 친구들 등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교육에서는 <똥은 꿀 찾기> 로만 진행하면 됩니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따라 선택해서 진행해주세요.

▶ 상호 인터뷰

☞ 2명씩 짝을 지어 서로를 인터뷰한다.

- 1) 이 곳에 어떻게, 왜 왔나요?
- 2) 오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3) 오늘 긴장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나와 인터뷰한 친구를 모두에게 소개한다.

▶ 똥은 꿀 찾기 “~한 사람”

☞ 원을 만들고 참여자 수보다 하나 적게 의자를 준비한다.

☞ 진행자가 먼저 시작하고 빈자리에 앉으면,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 그 다음을 진행한다.

- 1) “~한 사람” 이라고 외치고 얼른 빈자리에 가서 앉는다. (예 : 운동화 신은 사람, 체육복 입은 사람, 바지 입은 사람, 안경 쓴 사람 등)

[진행 tip] ★ 처음에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점진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질문으로 시작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2) “~한 사람”은 말하는 자신의 특징이나 경험이 반드시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 3) 다른 참가자와 공통된 특징이나 경험을 말하되,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4) 바로 옆 의자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의자를 옮기는 것도 안 된다.
- 5) 활동 후 이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같이 이야기해본다.

*** 단순 목적**

- 처음에 끼리끼리 모여 있는 그룹을 섞어주는 역할을 함
- 즐거움, 기대감, 참여하고 싶은 마음 가지게 하기

*** 깊은 목적**

차이가 존재한다. 서로의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독특하다. 하지만 성별, 젠더, 혹은 배경과 관계없이 그 표면 아래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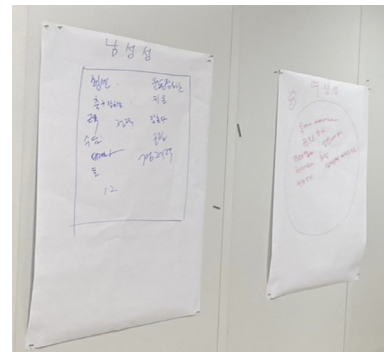
2. 교육

(30분)

▶ 단어 이어 쓰기

- ☞ 참가자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종이를 준비해서 벽에 붙인다.
- ☞ 한 종이에겐 가운데 사각형을 그리고 '남성 성' 이라고 쓴다.
- ☞ 다른 종이에겐 가운데 원을 그리고 '여성 성' 이라고 쓴다.

예)



- 1) 정해진 짧은 시간을 설정한다. (3분, 5분, 7분 등)
- 2) 참가자는 종이 위에다 차례로 단어를 쓰고, 다음 사람에게 펜을 넘긴 후 맨 뒤로 간다.
- 3) 단어에는 제한이 없으며 머리에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단어를 쓴다.

4) 중복 없이 가장 많은 단어를 쓴 팀이 이긴다.

★★ 게임 규칙!! 비판 금지, 자유분방, 다다익선

5) 활동 후 이 활동의 목적에 대해 다같이 이야기해본다.

- 남성성을 표현하는 단어를 봤을 때 어떻게 느꼈나?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있는가?
- 여성성을 표현하는 단어를 봤을 때 어떻게 느꼈나?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있는가?
- 서로의 단어 리스트에는 차이가 있는가? 왜 한쪽에는 포함되는데 다른 쪽은 아닌가?

[진행 tip] ★ 이 게임의 목적은 남성성/여성성이 부족/부재한 사람에 대해 흔히 하는 말들 또는 청소년들이 또래들에게 들게 될 조롱/비하적 표현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젠더 박스’ : 사회에서 규정한 성 역할 고정관념 개념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 우리들의 약속 만들기 Work Sheet 4

☞ 함께 정한 약속문을 모두가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다같이 읽어본다.

우리들의 약속 서약서

성차별과 혐오가 없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 만들기

1) _____

2) _____

3) _____

나는 반드시 위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이름 : (서명)

3. 마무리 <회고 질문>

(5분)

☞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회고할 수 있는 질문을 나누고 마친다. 아래의 질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교육내용을 회고해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내가 가진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긴것일까?
2. 성별에 관련된 혐오표현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실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개인 혹은 국가가 자신만을 위한다면,
그 누구도 오래도록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란 '우리는 함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정원 중-



그게 진짜 너꺼야? 너의 기본템은? (능력주의와 공정)

목표

-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개인의 탓이 아님을 깨닫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시험으로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공정과 공평함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여는 질문 (15분)

- ▶ 입장 라인 토론 '나의 입장은?'
- 제시 문장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해서 짧은 시간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교육 (30분)

- ▶ <탁구공 게임>으로 공정에 대해 생각해보기
- 나에게 주어진 아이템만으로 탁구공 게임을 한다. 주어진 아이템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테스트를 봐야 한다. 게임이 끝난 후 서로의 느낌을 나눈다.

회고 질문 (5분)

1. 시험 성적 결과는 온전히 각 개인의 능력일까요?
2. 레이스게임에서 조금 느린 캐릭터에 부스터를 달아주는 게 잘못일까?
3. 모든 것은 나한테 달렸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능력이 생기는 걸까?

참고자료

1. <용어설명> :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48p
2. <사례> : 1) 보건의료노동자 성별 임금차별 심각 49p
2) 이준석이 쏘아 올린 '모든 할당제 폐지'...공정인가 소외인가 53p
3. <동영상> : 부모소득 따라 가는 대학, 명문대일수록 저소득층 비율 낮아

준비물

그룹이 쓰인 탁구공 110개, 탁구공을 그룹별로 나눈 주머니, 큰 박스 1개, 사탕 29개

이 주제의 중요 message!

불공정과 불평등은 다르다.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의 능력은 시험으로 측정할 수 없다.

1. 여는 질문

(15분)

▶ 입장 라인 토론 '나의 입장은?'

- 1) 아래의 질문에 대한 나의 입장을 표현해본다. (질문 중 택1)
 - 질문 1: 대학입시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 질문 2: 조별 수행평가는 참여도와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점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 질문 3: 시험성적의 결과는 모두 개인의 능력이다.
- 2) 한줄로 서서 표현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른쪽,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만큼 왼쪽에 선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2. 교육

(30분)

<탁구공 게임으로 공정에 대해 생각해보기>

▶ 탁구공 게임 진행 방법

<주어지는 기본템>

A 그룹 2명 탁구공 10개	B 그룹 3명 탁구공 7개	C 그룹 9명 탁구공 5개	D 그룹 5명 탁구공 3개	E 그룹 2명 탁구공 1개
------------------------------	-----------------------------	-----------------------------	-----------------------------	-----------------------------

* 만약 인원이 더 많을 경우 비율에 맞게 적절히 인원을 배치한다.
다만 C,D에 주로 배치

<게임시간 : 총 2분>




- 1) 게임진행을 위해 큰 박스를 교육장 앞쪽에 배치하고, 적당한 거리에 던지는 선을 바닥에 표시한다.
- 2) 기본템은 진행자가 무작위로 나눠준다.
- 3) 5분간 각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그룹별로 동일하게 준다.
- 4) 연습시간이 끝나면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은 그룹을 다양하게 섞어 5명씩 나와서 한다.
탁구공을 2분 동안 박스 안에 가장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 **게임이 끝난 후 마무리**

- 1) 이 게임에 대한 나의 느낌은? 이 게임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나요?
- 2) 가장 많은 기본템(탁구공)을 가졌던 사람의 소감과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의 소감을 들어봅니다.
- 3) 이 게임에서 탁구공의 갯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템이 차등적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나요?
- 4) <마무리 질문과 설명>
 - 나의 노력만으로 게임을 치를 수 있었나요?
 - 게임은 모두 같은 조건에서 진행했지만 결국 탁구공을 더 많이 가진 그룹이 유리하지 않았나요? 나에게 주어진 탁구공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태어난 것(즉,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게임과 같은 시험이 가장 공정하고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거라 생각하진 않나요?
 - 이 게임이 현실을 얼마나 반영한다고 느꼈나요?
- 5) 전체적인 소감을 나누고 마침

3. 마무리 <회고 질문> (5분)

☞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회고할 수 있는 질문을 나누고 마친다. 아래의 질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교육내용을 회고해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시험 성적 결과는 온전히 각 개인의 능력일까?
2. 레이싱게임에서 조금 느린 캐릭터에 부스터를 달아주는 게 잘못일까?
3. 모든 것은 나한테 달려있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능력이 생기는 걸까?

1. 갈등, 난이럴 때 어떻게? (갈등과 정치)

용어설명

1) 정치란?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규칙을 만들고 보존하고 수정하는 활동이다. 정치는 갈등과 협력이라는 현상과 연관되는데, 특히 정치의 본질은 때로 갈등해소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며 갈등해소 과정에서 대립적인 견해 혹은 경쟁적인 이해관계들이 서로 조정되게 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정치란, 모든 갈등이 말끔히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갈등해소 자체보다는 갈등해소를 위한 탐구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는 정치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¹⁾

① 통치기술로서 정치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독일 제국의회 연설에서 “정치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통치기술은 집단적 결정을 만들고 강화시킴으로써 사회 내에서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대 그리스 시대 정치가 지니는 원래 의미에서 발전된 정치에 관한 고전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학 연구는 본질적으로 통치를 연구하는 것이자 권위행사를 연구하는 것이다. 미국 정치학자인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정치가 여러 다양한 과정을 에워싸고 있으며, 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더 큰 사회로부터 발생하는 압력에 대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권위적 가치들’은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시민들을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공적 업무로서 정치

정치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개념화한다면 정부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 ‘공적 생활’ 혹은 ‘공적 업무’로 간

1) 앤드류 헤이우드 저, 조현수 역, 2014. 『정치학-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성균관대 출판부, pp.27-42에서 발췌 및 요약.

주되는 영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즉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의 경계는 본질적으로 공적생활 영역과 사적생활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과 일치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인간은 본래 정치적 동물이 다”라고 단언하면서, 인간은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만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정치는 ‘정의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것과 관련된 하나의 윤리적 활동이 된다.

공적활동으로서의 정치는 신성하고 계몽적인 활동이 된다. 아렌트(Hannah Arendt)는 정치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역시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개인의 도덕적 발전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③ 타협과 합의로서 정치

정치란 수행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란 강제나 노골적인 힘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타협, 화해,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특별한 수단이다. 이러한 개념화는 정치가 ‘가능성의 기술(the art of the possible)’로 묘사될 때 암시된 개념이다. 이는 정치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내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정치적’ 해결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종종 ‘군사적’ 해결이라고 칭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로운 토론과 조정을 의미하게 된다.

정치를 타협과 합의의 과정으로 볼 때 정치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권력을 보다 폭넓게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며, 사회집단과 세력들이 권력을 소유할 때 정치를 통해 폭력이나 강제보다는 조정을 선택함으로써 질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논의와 토론을 중시하며, 사회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합의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는 신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④ 권력으로서 정치

정치를 권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는 정부, 국가, 공적영역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활동과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서 작동한다. 정치는 모든 인간집단, 제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집단적 사회활동-공식적 및 비공식적 활동과 공적 및 사적활동을 포함-의 핵심이 된다.

가장 포괄적인 차원에서 정치는 사회생활 과정에서 자원의 생산·분배·소비와 관련된다. 본질적으로 정치는 권력이며,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원하는 성과를 달성해 내는 능력이 된다. 정치는 희소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으로, 권력은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수단을 통해 희소 자원을 둘러싼 투쟁이 발생하게 된다. 여성주의, 맑스주의 등에서 권력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2) 갈등이란?

갈등이란 심리적 대립상태와 이의 행동적 표출을 의미한다. 갈등은 개인 간에도 발생하지만, 집단, 조직, 사회, 정치, 국제 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의 통합, 안정, 질서유지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였지만, 이후 갈등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관점으로 변화하였고, 갈등의 존재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현재는 갈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인정하는 관점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 이해관계의 양립가능성, 실제와 인식 간의 차이, 세계관 및 행위양식의 불일치 등으로 구성되며, 분석적 차원에서는 인지, 정서, 행위 차원으로 세분되는데 이 세 차원이 서로 연계되면서 갈등은 더욱 복합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²⁾

갈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변동과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근간으로 파악하는 관점에는 맑스주의가 있다. 사회의 재화는 일정한 것에 비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므로 모든 사회의 발전은 유한한 재화를 향한 인간들의 갈등과 긴장관계에 놓여있다.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사회가 변동되고 사회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층갈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맑스에 의하면 생산양식 혹은 경제적 토대가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상부구조를 조건 지우거나 규정하는데, 역사변화는 계급갈등 속에 반영된 '생산양식' 내에서의 내적갈등의 결과라고 한다. 이러한 변증법에 의해 맑스는 자본주의가 생산적 부의 소유자인 자본가 계급과 사실상 임금노예인 노동자 계급 간 갈등의 결과 붕괴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 외에도 미국의 정치학자인 샤프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는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며, 민주 정치의 핵심문제는 갈등 관리라고 말하였고,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는 갈등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논의해 조정하거나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갈등이 억압되는 조건은 곧 정치가 약화되고 민주주의가 축소되는 환경인 것이며, 민주주의 정치체제일지라도 정당정치를 통해 사회갈등을 폭넓게 조직하고 동원하고 통합하지 못한다면 시민주권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이념, 노동, 지역, 환경, 계층, 교육 등 다양한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갈등을 예방하거나 조정 및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중립적 제3자의 개입을 통한 조정, 소통의 장 마련 외에도 시나리오 워크숍,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과 같은 숙의를 통한 의견수렴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2) 강미라, 원효현. 2019. "마을공동체 주민 간 갈등의 실제에 대한 사례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31권 6호, pp.1851-1861.

2. 나만 아니면 괜찮아? (공동체 문제에 무관심한 우리)

용어설명

1)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해자'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해를 끼친 사람, 즉 불법행위 또는 범죄를 통해 제3자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의미한다. '피해자'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으로 타인의 범죄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방관자'란 도움이 필요해 보임에도 관여하려 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학교폭력이다. 학교는 강력한 교칙과 규범을 바탕으로 동질성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강자와 약자, 다수와 소수 등 불평등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집단따돌림, 또래괴롭힘, 이지메 등의 행동에 동조하며 적극적으로 이 행동에 협조한 학생을 의미하고, 피해자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 행동을 당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방관자는 단순히 방관행동만 보이는 단일집단이기 보다는 다양한 행동과 태도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집단이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그 발생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장난이라고 치부하면서 가해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는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방관자는 가해자가 아니며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폭력에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남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관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가해자도 열등감, 적의, 불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모두가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중 역할에 놓여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가해 주동자 주변을 맴돌게 되는데, 스스로는 완전히 가해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해 주동자 주변을 맴돌다가 자신보다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이로부터 만성적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 혹은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폭력에 가담하여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 문제로만 환원시킬 수 없다. 대부분의 사건은 폭력을 용인하거나 방조하는 객관적 구조와 환경 아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폐쇄적 사회관계, 교육제도가 만든 폭력적 구조, 사회경제적 불평등, 괴롭힘과 학대를 사회적 관계의 하나로 활용하는 가학적 문화 등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³⁾

2)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은 독일계 미국인 정치철학자인 아렌트(Hannah Arendt)가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강제이주와 학살 실무 책임을 맡았던 독일 나치 친위대 간부였는데, 1960년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비밀경찰에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독일 출신 유대인으로 미국으로 망명했던 아렌트는 ‘어떻게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될 수 있었는가’의 의문을 품고 아이히만의 재판부터 사형집행까지를 취재하여 책을 출간하였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보통 가장이라는 데 놀랐다. ‘아이히만은 셰익스피어 소설에 등장하는 맥베스 같은 악의 화신을 떠올리게 하는 사악함도 없었고, 유대인 혐오자도 아니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명령 복종을 의무로 여기고, 의무를 지키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여기서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 개념을 끄집어냈는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악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 악한 행위는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데서 나온다’고 하였다. ‘아이히만은 아주 부지런한 인간이었다. 타인의 입장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생각하기를 포기한 것이 결정적 결함’이며, 악의 평범성을 떠받치는 것은 생각의 무능력인 것이다.

아렌트는 이후 인터뷰에서 ‘아이히만은 분명 유죄’라면서 ‘다만 다른 사람의 입장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유가 없는 사회에선 유대인 학살과 같은 만행이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자 했다’

3)“왕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시시뉴스피플> 기사 (2011.02.28.)

<https://www.inewspeo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7>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가해자-피해자 도식을 넘어.” <주간경향> 1521호 (2023.04.03.)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c=202303241250541&code=115>

고 말하였다. ‘무사유가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대과멸을 가져올 수 있다. 나치즘의 광기든 뭐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방법은 오직 깊이 성찰하고 사유하는 것뿐이다.’⁴⁾

3)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서로를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돈이 된다?

사회적 자본 개념은 부르디외(Pierre Bourdieu) 등의 저서에도 등장했지만, 퍼트남(Robert Putnam)의 저서 『민주주의 작동시키기』, 『혼자서 불링하기』에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퍼트남에 의하면 물리적 자본이 물리적 대상들을, 인간 자본이 개인들의 소유물을 지칭한다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간의 접합점들, 즉 그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들과 상호성 및 신뢰의 규범들을 지칭한다. 이 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시민 덕목(civil virtue)’이라고 부르는 것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사회적 자본은 상호적 사회관계의 의미 네트워크 속에 내재되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 간 네트워크는 집단 내 유대를 형성하는 결속 다지기(bonding), 집단 간 연결되는 다리 놓기(bridging), 집단들-정부-시장 간 큰 규모로 연결되는 연계하기(linking)를 통해 확장될 수 있다. 건강하고 자발적인 집단들이 결속다지기, 다리놓기, 연계하기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회가 민주적이며 대부분 경제적 성공도 이루게 된다. 그 요소가 바로 사회적 자본인데, 관용, 협동심, 민주적 삶의 방식을 배양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민주적 토양을 가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속의 민주주의 - 다수가 늘 옳은 것일까?

현대 민주제도 하에서 시민은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선출된 대표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점차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에 무관심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민주적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비판적, 참여적 시민과 속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속의 민주주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 대화, 토

4) “다시 읽는 명저 타인의 입장과 자신 행위에 대한 생각포기는 최악..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으로 생각의 무능력 비판,”

<생글생글> 662호 (2020.05.04.)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0042942121>

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르는 숙의가 중심이 되는 의사결정과정을 말한다. 이는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공공영역이란 '의사소통의 수단에 의해 연결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주어진 상호작용의 환경 내에서 작동되는 권력관계들에 관하여 비폭력적 논쟁을 분출시키는 어떤 특수한 유형의 공간적 관계'를 의미한다.

독일 철학자인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의사소통적 행위, 담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건강한 시민사회란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의미들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라고 하였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적 대화의 참여자들은 합리적 논쟁의 힘을 통해 당시의 큰 이슈들에 관해 어떤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데, '승지는 제일 큰 목소리가 아니라 최고의 생각들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숙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던 사례로는 영국의 커피하우스,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타운미팅 등을 들 수 있고, 현재는 문학서클, 독서클럽, 시민 배심원단, 세계사회포럼 등을 들 수 있다.

사례

5)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는데 왜 이사를 가야할까?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려 도시도 발전하고 인구도 집중되었다. 그런데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도시와 가까운 외곽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왜 그랬을까? 대도시의 일부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였고, 때문에 기존 주민과 임대 상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 지역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사전적 정의는 '고급 주택화'라고 한다. 즉 원래 젠트리피케이션은 상류사회가 살기 편찮은 도시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낙후된 주거생활 구역에 젊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상류층이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하고, 쇠퇴한 도시 내부가 재생되고 활성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 현상에는 지역의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라는 부정적 의미 역시 내포되어 있다.

1990년대 초까지 미국 뉴욕의 할렘은 흑인들의 주요 주거지역이자 범죄의 온상으로 악명을 떨친 지역이었다. 당시 빌 클린턴 정부와 뉴욕시 정부는 '제2차 할렘 르네상스'를 통해 탈바꿈을 시도하였다. 할렘을 개발한 결과, 다양한 인종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으로 변화하였고, 치안 수준도 낮에는 큰 문제 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대료가 높아져 다수의 원주민이 떠나게 되었고, 개발이 진행되었던 웨스트할렘은 치안이 그나마 안정되었지만, 이스트할렘 지역은 히스패닉들이 거주하게 되

고 멕시코계 마약 카르텔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더 위험해진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나라에는 ‘홍대’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가 있다. 홍대거리는 1980년대부터 상인들이 이주하면서 상점을 세우기 시작했고, 1990년대 클럽문화는 홍대를 대형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 2002년 월드컵 이후에는 외국인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점차 대형 상권이 형성되면서 원래 홍대에 자리 잡고 있던 예술인들과 상인들은 높은 지대와 대형자본 유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근 지역인 합정, 망원, 성산, 서교 등으로 떠나갔다.

이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성동구가 나섰다. 성동구는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핫플이라고 할 수 있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였고, 건물주, 임차인, 거주자,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은 뜨는 상권의 상가 임대료가 올라 골목 문화를 만들어 낸 주체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구역 내에서는 건물주·임차인·성동구 사이 상생협약 체결이 권장되었다.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하거나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용적률 완화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의 성패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공동체의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⁵⁾

6) 학자들은 협력이 어려운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갈등 혹은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협력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쉽게 협력하지 못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또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은 쉽지 않다. 학자들은 갈등해결과 협력의 어려움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공유지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를 소개한다.

●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미국 생물학자인 하딘(Garrett Hardin)이 《Science》에 발표한

5)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 <콩나물신문> 기고문 (2022.02.18.)

<https://www.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68>

“지난해 임대료 상승1위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대응구역 8.6배 확대” <경향신문> (2023.08.01.)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8011402001#c2b

논문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하딘은 이 논문에서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동이 집합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을 비극 혹은 재앙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딘의 예시에 따르면, 목동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고 가정할 때, 목동들은 각자 자신의 가축을 목초지에 방목시킴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 만약 어떤 목동이 목초지가 유지될 정도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수의 가축을 키운다면, 그 목동은 이익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불할 비용은 적어지게 된다. 그런데 모든 목동들이 이익을 얻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수의 가축을 키운다면 결국 목초지는 남용되면서 감소되고 결국 목초지는 재생불가능하게 파괴될 것이다. 즉 개인의 비용감소를 위한 이익극대화는 결국 전체의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특히 환경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데, 자원, 호수, 공기 등 우리가 공공재산으로 누리는 자연이 개인의 이익에 따라 계속 이용될 경우 고갈되고 파괴되어 결국에는 우리에게 비극적 결말에 이를 것임을 경고한다.

●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는 게임이론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시이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들 혹은 국가들 간 협력이 왜 어려운가를 설명한다.

분리된 방에 감금되어 있는 두 명의 범인들은 서로 ‘밀고’하든가 ‘밀고하지 않든가’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그들 중에 한 명만이 자백할 경우, 그는 다른 범인을 유죄로 선고할 증거를 제공하고 책임 없이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고 10년 동안 투옥될 것이다. 만약 이 두 범인

		죄수 B	
		자백	자백하지 않음
죄수 A	자백	A : B 6년 : 6년	A : B 0년 : 10년
	자백하지 않음	A : B 10년 : 0년	A : B 1년 : 1년

들이 자백할 경우, 그들 각각은 6년 동안 투옥될 것이다. 만약 두 명 모두 자백을 거부할 경우, 그들은 각각 1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이 두 명의 범인이 직면한 딜레마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명의 범인은 모두 자백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범인들은 상대방이 밀고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최고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게임은 합리적 행동이 가장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그들은 서로 협동하거나 신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게임이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 범인들은 이기심이 협동을 통해 진척된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고, 협력을 위해 자백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3. 불편함, 어디까지 참아야 해? (권리에 대한 인식)

용어설명

1) 인권과 시민권

인권이란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 또는 지위를 의미한다.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 국적 등 지역적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정의된다.

인권에 대한 관념과 제도는 18세기 근대 시민혁명을 계기로 정립되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공식명칭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1조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공 이익에 근거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천부인권과 자유, 평등의 정신을 천명하였다. 이후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여, 총 30개 조항을 통해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을 ‘도덕적·당위적·추상적 차원에서 논의된 인간의 권리’라 한다면, 시민권은 ‘제도적·법적·현실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권이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한 권리라면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 소속된 시민이 누리는 권리이다.

마셜(T. H. Marshall)은 이러한 시민권이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이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고 보았다. 첫째, 자유권의 공민적(civil) 요소는 개인의 자유에 필수적인 권리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인격적 자유-육체와 의식의 자유(liberty)-, 언론·사상·종교의 자유(freedom),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리,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속한다.⁶⁾

둘째, 참정권의 정치적 요소는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은 정치적 권위가 부여된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그러한 기구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 참여한다. 셋째,

6) 한국어로 모두 자유로 번역되는 liberty와 freedom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liberty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freedom은 외부(타인)의 구속과 강제가 없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뜻한다.

사회권의 사회적 요소는 약간의 경제적 복지와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최대한 공유하면서 문명화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한다. 대체로 공민적 권리는 18세기, 정치적 권리는 19세기, 사회적 권리는 20세기부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⁷⁾

2) 프레임(frame)- 세상을 보는 렌즈

뉴스는 사실만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뉴스는 기자들의 인식, 확인, 해석의 틀을 통해 이야기나 이미지가 구성된다. 여기서 뉴스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이야기나 이미지 구성 방식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프레임을 그대로 번역하면 ‘틀’, ‘액자’이다. 레이코프(George Lakoff)에 의하면 프레임이란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주고 때로는 인간이 실제로 여기는 것들을 창조하도록 만드는 심적구조, 즉 ‘인식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임은 인간의 아이디어나 개념을 구조화하고 사유방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배경이 된다. 프레임은 개인이 특정한 단어를 들었을 때 그에 연상되는 내용들을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다. 인간은 이러한 프레임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살아가는 내내 프레임을 사용하며 사고한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이란 본래 국민의 건강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의미하는데, 1980-90년대 미국 공화당 정부는 복지예산을 줄이고 복지정책을 축소할 목적으로 ‘복지 여왕(welfare queen)’, ‘세금 구제(tax relief)’라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이 프레임에서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과 복지수당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악당이 되고,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은 희생자가 된다. 여기서 정부는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구제’하는 영웅이 된다는 스토리로 세금 감면을 프레임(framing)하면서 지지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⁸⁾

7)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2016. 『제2의 탄생-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과 교재』 경희대 출판문화원, pp.70-72.

8) 조지 레이코프 저, 유나영 역, 2006.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삼인/ 조지 레이코프 저, 2007. 『프레임 전쟁』 창비.

사례

3) 미국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s. Board of Education) 판례 - 가까운 데 있는 학교를 못가는 이유는? 분리하는 것이 평등한 것인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어떤 주(州)도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해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평등조항은 노예제를 둘러싸고 미국 북부와 남부의 갈등이 폭발한 남북전쟁 직후 헌법에 삽입되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미국사회에서 흑인들에게 대대로 가해지던 부당한 법적 차별을 막는 데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 ‘분리 평등 원칙(separate but equal)’이 통용되고 있었다. 이 원칙은 1896년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s. Ferguson) 판결에 의해 확립된 것인데,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백인이 사용하는 곳과 흑인이 사용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시설의 질이 동일하다면 차별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헌법에 인종차별이 금지되었더라도, 현실에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식당, 화장실, 기차, 버스 등 다수의 시설에서 ‘분리되지만 평등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었다.

이 원칙이 깨진 것은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s. Board of Education) 판결 이후이다. 자신의 아이를 집에서 가까운 백인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흑인 부모들이 연방대법원까지 찾아와 자식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호소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시설을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차별, 즉 분리 그 자체로 시설의 질 차이를 따질 것 없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흑인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로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를 강제로 통합시키는 이 판결은 미국 사회 전역에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미국 전역에서 실제 학교통합은 10년 후에나 이루어졌다.⁹⁾

4) 광화문 횡단보도 복원 - 차가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서울에서 보행자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인 광화문. 사통팔달 연결되어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현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1999년까지 광화문 거리에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자동차는 땅 위로 편하게 다니고, 사람들은 가까운 목적지를 두고 지하차도의 계단을 오르내렸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었다.

9) 미국정치연구회 편. 2013. 『미국 정부와 정치 2』 오름. pp.74-75.

광화문 지하보도는 1966년에 준공되었는데, 당시에는 ‘보행자는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차량은 신호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목적에서 건설되었다. 이후 전국에 지하보도와 육교가 앞다투어 건설됐고, 그만큼의 횡단 보도는 사라졌다. 지하철 건설로 생긴 역의 지하도들도 횡단보도 지우기를 가속화시켰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차가 우선이 아닌 사람의 보행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돕는 활동을 전개했던 ‘녹색교통운동’이 보행권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는데, 특히 서울시 의회와 싸우면서 벌여 온 일 중 하나가 보행권 조례제정 운동이었다. 1997년 서울시의 보행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세종로 사거리에는 세종문화회관과 동화면세점을 잇는 딱 한군데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

‘녹색교통운동’은 시민의 힘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거리로 나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1998년 광화문과 신촌로터리 등 10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명지를 만들어 거리로 나섰다. 특히 신촌로터리는 10미터 밖에 안되는 코앞의 도로를 건너기 위해 100미터 이상을 지하로 건너도록 한 곳이었기에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 이후 서명지를 6개 단체 명의로 경찰청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접수하였고,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1998년 12월 23일 서울시는 ‘녹색교통운동’ 등이 요청한 10개 지점 가운데 광화문과 신촌 등 6개 지점을 횡단보도 설치 가능 지역으로 판단했으며, 1999년 상반기 중 횡단보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횡단보도가 복원된 직후인 1999년 4월 15일 ‘녹색교통운동’은 “시민의 힘으로 만든 횡단보도입니다”라는 자축 안내문을 횡단보도에 붙이기도 했다.

광화문 횡단보도는 보행권 회복의 상징이자, 교통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전국에서 장애인,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육교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다른 도시들에도 보행권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다. 또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을 변화시키겠다는 시대정신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었던 운동이었다.¹⁰⁾

10) “누가 광화문 횡단보도를 복원했나, 시민의 힘이 만든 쾌거” <그린 코리아 포럼>

<https://greencore.kr/aaa6/7>

“광화문의 횡단보도는 언제 만들어질까?” <녹색교통운동> (2016.12.08.)

<https://greentransport.org/news/?q=YToyOntzOjE5OjIjZXI3b3JkX3R5cGUlO3M6MzoiYWxsIjtzOjQ6InBhZ2U>

4.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젠더 갈등)

용어설명

1) 교차성(intersectionality)

‘교차성’ 개념은 1989년 미국의 흑인 여성 법학자인 김벌리 크렌쇼(Kimberlé Williams Crenshaw)가 흑인 여성이 겪는 차별의 특수한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제너럴모터스에서 정리해고된 흑인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크렌쇼는 법률이 성차별과 인종 차별을 별개로 다룬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의 페미니스트와 반인종차별주의자들이 받아들이던 ‘단일축 체계’를 거부하고 교차성 용어를 사용하여 ‘흑인 여성 경험의 다층적 차원을 형성하는 젠더와 인종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방식’을 다루고자 하였다. 즉 흑인 여성 대다수가 노동자 혹은 그 이하의 위치에서 경제적 으로 착취당하는 인종, 계급 등의 문제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임을 주창하였다.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에는 젠더, 인종, 성적 지향, 계급, 장애, 연령, 종교 등 다양한 억압이 상호교차적으로 작용하기에 이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교차성’ 개념은 이후 서구 학계와 사회운동가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교차성 개념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기보다 페미니즘 이론과 더불어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등 다수의 차별 반대 운동에서 이 개념을 통해 차별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겪는 다양한 차별 경험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에서 차별 경험이 기인된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별 이외에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연령 등 또한 차별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¹¹⁾

그러나 교차성을 더하기 모델(additive)로 보는 것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즉 교차성 이론을 ‘가난한’,

11) “교차성과 돌봄, 그리고 영 케어러” <생태적지혜> (2021.10.17.)

<https://ecosophialab.com/%EA%B5%90%EC%B0%A8%EC%84%B1intersectionality%EA%B%BC-%EB%8F%8C%EB%B4%84-%EA%B7%B8%EB%A6%AC%EA%B3%A0-%EC%98%81-%EC%BC%80%EC%96%B4%EB%9F%AC/>

“교차성”은 차별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인가? <마크스21> 16호(2016 10~11월) <https://marx21.or.kr/article/204>

레즈비언, ‘여성’이라면 억압에 관해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억압을 정량화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인한 것이며, 낙인찍힌 정체성을 겹겹으로 쌓아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¹²⁾

2)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우대조치’(적극적 차별보상조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등으로 번역 가능)라는 용어는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uncil)의 설립을 지시하면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1965년 존슨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고용부문에 이 조치를 시행하면서 계승 발전되었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차별의 후유증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 재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고용, 승진, 계약체결, 그리고 대학 입학 등에 있어 그동안 차별 받아 온 소수인종이나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차별금지’와는 차이가 있다. 차별금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별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극적 우대조치는 과거에서부터 차별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시정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과거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과거 차별이 누적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차별을 중단시킬 수 없으며 미래의 차별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과거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을 지지한다. 이는 ‘출발선 맞추기’ 혹은 ‘땅고르기’의 의미를 갖는다.¹³⁾

한편 적극적 우대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소수가 차별받은 사실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지도 않은 현재의 무고한 다수가 희생 되어서는 안되며, 소수에 대해 국가에서 적극적 우대정책을 쓰는 것은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2023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학입시의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한다. 지원자 개인의 성적이나 성취가 아닌 인종을 입학 전형에 고려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같이 적극적 우대조치는 사회의 작동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 과거차별과 현재차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찬반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12) 한우리, 김보명, 나영, 황주영 저. 2018. 『교차성X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13) 장지연. 2006. “미국의 적극적조치 논쟁과 시사점.” 『한국여성학』 제22권 2호, pp.168-171.

3) 혐오표현(hate speech)

혐오표현과 혐오범죄라는 용어는 198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인종, 민족, 종교, 성, 성적 지향 등과 같은 특정한 속성을 가진 집단에 대해 혐오를 고취시키려는 의도와 효과를 갖는, 그리고 표적에 대해 비방, 모욕, 심지어 인격말살의 극단적 형태를 취하는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표적 집단과 개인의 존엄과 기본권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각 국가들마다 다른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첫째, 혐오표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률을 지닌 국가들로, 대다수의 선진국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혐오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혐오표현규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인데 대표적인 국가로 호주, 뉴질랜드를 들 수 있다. 셋째,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있다.

혐오표현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혐오표현의 해악과 인간존엄, 평등권을 강조한다. 반면 규제를 반대하는 쪽은 규제효과가 없는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표현 및 사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 개인의 자율성에 반한다는 점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¹⁴⁾

2023년 4월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지향이나 종교, 직업, 질병 등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전, 선동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했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공간에 게재된 표현에 한해 적용되며, 혐오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표현을 포함한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삭제,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례

4) 프랑스 이집 금지 사례-다양성 존중인가, 소수 종교 차별인가?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라이시테(Laïcité)는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 원칙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통합 논리로 인용된다. 프랑스는 엄격한 정교분리를 시행하

14) 박승호, 2019.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 제31권 3호, pp.45-88.

며, 겉모습으로 종교를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라이시테는 소수 종교 신봉자, 특히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도구라는 비난받고 있다. 왜 그럴까?

라이시테 원리가 무슬림 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1989년 파리 북쪽의 크레유(Creil) 지방 한 중학교에서 히잡(hijab)이라 불리는 이슬람식 스카프 복장을 하고 등교하는 무슬림 여학생들에게 라이시테를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표면화되었다. 2004년 프랑스 정부는 “공공 교육시설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종교적 상징물도 착용할 수 없다”면서 히잡, 부르카를 공공 교육기관에서 금지했다. 이 정책은 무슬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시크교의 터번, 유대교의 다윗의 별, 기독교의 십자가 등도 금지됐다. 이후 2016년에는 이슬람식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금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무슬림 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찬반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서구의 일부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이 여성을 억압하는 복식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선택한 패션이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히잡을 금지한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슬림 국가에서는 한 여성이 머리카락을 히잡으로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뒤 사망한 사건도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히잡을 쓸 자유를 말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히잡을 벗을 자유를 토로한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과 라이시테 문제는 자유, 평등, 다양성 존중의 가치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충돌한 것으로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¹⁵⁾

15) 오정은. 2021. “프랑스 라이시테의 역설- 종교 중립 원칙의 무슬림 차별.” 『통합유럽연구』 제12권1집, pp.105-125.

“히잡을 쓰든 말든 내 맘대로 할 거야.” <한겨레> (2022.10.2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3811.html

5. 그게 진짜 네꺼야? 너의 기본템은? (능력주의와 공정)

용어설명

1)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 공정의 근간은 무엇일까?

공정과 공평이 화두가 되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일까?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불리는 롤스(John Bordley Rawls)의 정의론 중심에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 롤스는 어떤 정의의 원칙들이 공정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선택될 정의의 원칙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할 것인가 추론해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롤스는 (그런 선택이 이루어질)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상상한다. 원초적 상황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별적인 특징에 관한 지식을 가지지 않은 채, 함께 모여 앞으로 살게 될 사회를 조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준다. 롤스가 볼 때 정의는 합의를 불공정하게 만들 어버릴 수도 있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체결한 가상의 계약 혹은 합의의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직관은 공정성과 무지 사이의 연관성이다.

내가 만일 파이를 자를 경우, 어떤 조각을 먹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어떤 조각을 먹을지 알고 있는 경우보다 더 공평하게 자를 가능성이 크다. 무지의 장막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 특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런 지식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비해 훨씬 더 공정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롤스는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을까? 이 원칙들은 첫째, 각인은 만인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기본적 자유들의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들은 (a) 최소 수혜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동시에, (b) 공정한 기회의 평등하에 만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직과 지위에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¹⁶⁾

16) 애덤 스미프트 저, 김비환 역. 2011. 『정치의 생각』 개마고원, pp.43-48.

2)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 취향도 계급차이의 반영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만들어 낸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자본과 달리 취향이나 취미 또는 학력이나 태도와 같은 무형의 형태를 띠면서 계급을 구분 짓는 자본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화자본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노출되고 한 가정 안에서 전승된다. 프랑스에서는 귀족과 평민 출신을 가르는 문화적 요소를 지칭하기도 한다.

부르디외는 문화자본을 ‘소유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상징적 부의 향유를 위한 도구’로 규정하면서, 박물관 방문, 서적구입과 독서습관, 연극·영화·음악회·전시회 관람, 고전음악 감상 등 다양한 예술 참여 척도를 문화자본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문화자본은 성향, 기호, 가치관, 문화적 차별성 등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조건 하에서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고, 교육자격과 같은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다.

문화자본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첫째, 체화된 문화자본은 의도적인 가르침 없이 무의식적으로 획득될 수 있으며, 금전이나 재산권과 같은 경제자본과는 달리 증여나 유산, 교환, 구매를 통해 즉시적으로 전수될 수 없고, 은밀한 방식으로 또는 비가시적으로 상속된다. 둘째,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책, 그림, 기념물, 악기 등 물질적 형태로 전수 가능한 자산으로서 체화된 형태의 문화자본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될 수 있다. 셋째,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졸업장과 같이 제도적으로 인정된 형태의 문화자본을 의미하며, 문화자본을 학문적 자격의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은 일부 자산을 중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르디외는 모든 자본의 기반은 경제자본이며 계층 간 차이를 재생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본을 졸업장과 같이 제도화된 또는 객관화된 형태의 문화자본으로 전환하는 기제라고 하였다.¹⁷⁾

사례

3) <뉴스기사>

보건의료노동자 성별 임금 차별 ‘심각’...18년 근속해야 男노동자와 비슷

출처 : 메디포뉴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등록2023-0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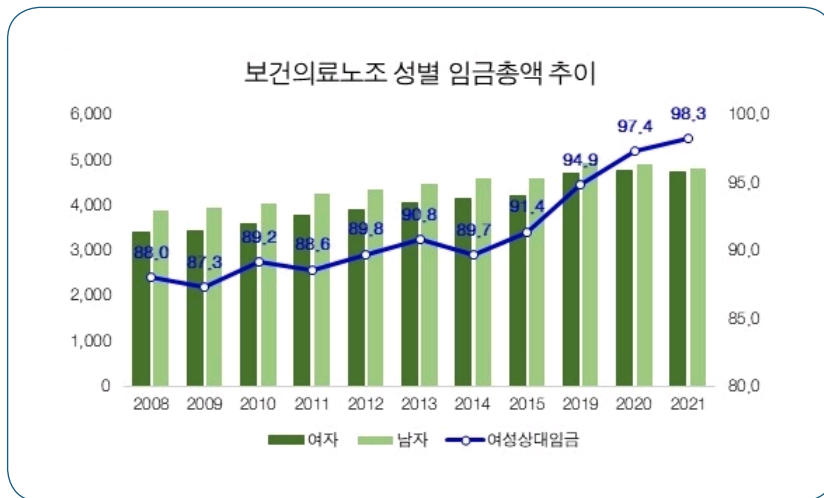
보건의료노동자 성별 임금 차별 ‘심각’...18년 근속해야 男노동자와 비슷

17) 김영화. 2012. “문화자본의 개념화와 문화자본 연구의 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육사회학연구』 제22권 2호, pp.31-63.

보건의료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구현해야”

2021년 기준 의료기관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대비 98.3%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장기근속 한정으로 간호직이 근속 15~18년을 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여전히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을 맞아 노동안전 실태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기관 여성노동자들의 심각한 임금격차 실태와 장기근속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분석대상 자료는 보건의료노조가 1998년부터 매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원자료이며, 데이터가 입력된 2009~2022년 기간 동안 성별, 직종, 임금 항목에 모두 응답한 원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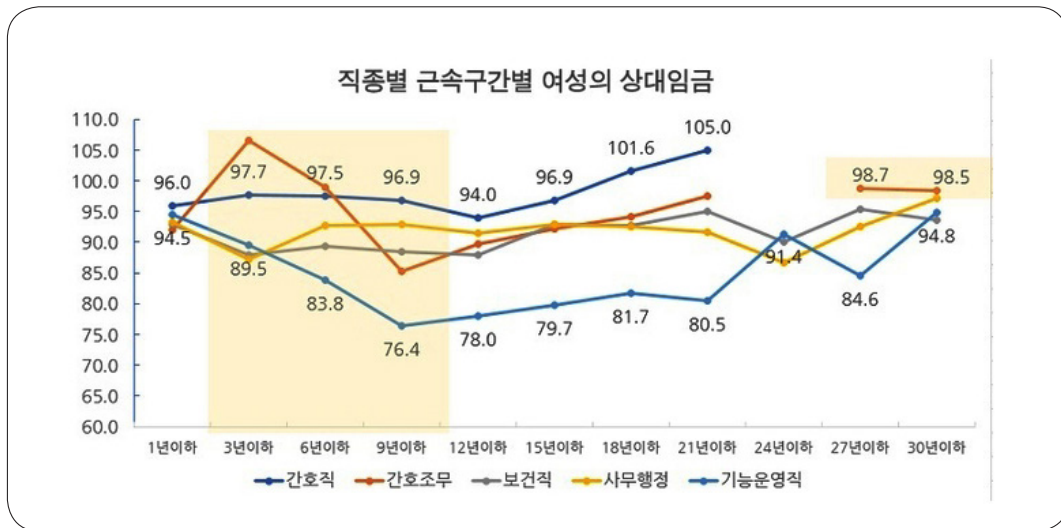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 임금격차는 2008년 이후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점진적으로 축소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전체 세전총액임금 평균이 3505만원 수준일 때 여성은 3418만원, 남성은 3882만원으로 남성의 임금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은 88.0%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에는 전체 임금 평균은 4766만원으로 13년 전인 2008년에 비해 36.0%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남성의 임금은 4833만원으로 24.5% 늘어 연평균 1.7% 증가했으며, 여성의 임금은 4750만원으로 39.0% 늘어 연평균 2.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체 평균치 기준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은 2008년 88.0%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2021년에는 98.3% 수준까지 근접했으며,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12.0%에서 1.7%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성별 임금격차 축소는 일정한 다수의 종사자들이 일정한 동등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간호직을 중심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주요 직종 종사자들이 교대제와 장시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조합원을 폭넓게 조직하고 있으면서 임금인상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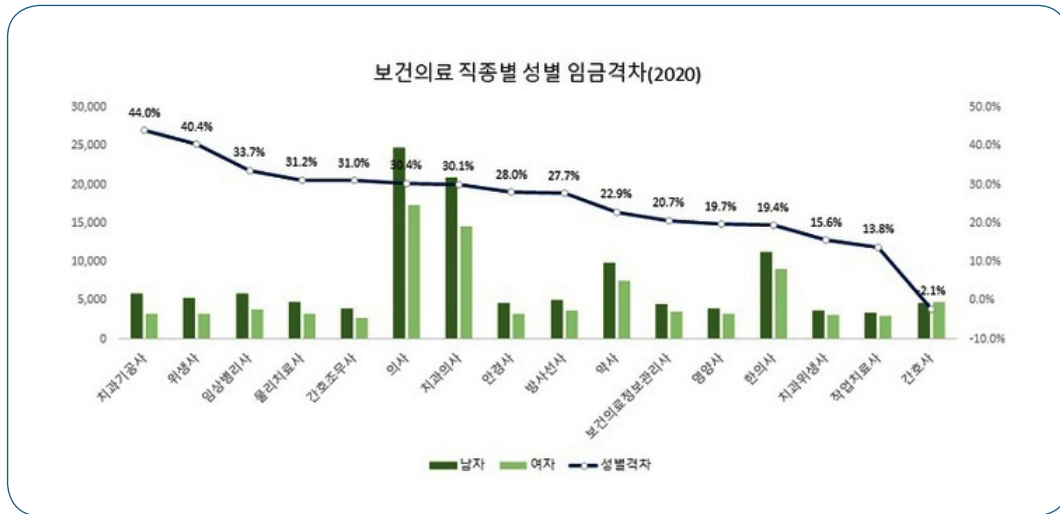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 임금결정체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근속년수를 함께 고려할 경우 보건의료산업에서도 남녀간 임금격차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크게 축소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의 응답자 평균 근속년수는 9.2년이었으며 2021년에는 9.1년으로 약간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남성의 평균 근속년수는 11.4년에서 9.5년으로 0.16년 감소한 반면, 여성의 평균 근속년수는 8.7년에서 9.0년으로 0.3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성 대비 여성의 근속년수가 2008년에는 76.2%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1년에는 94.5% 수준으

로 근접해졌으며,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경우 성별 임금격차 축소는 근속년수 격차 축소의 영향에 의한 효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동일직종간의 임금격차를 통해 파악했다.

그 결과, 근속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상대임금은 전체적으로 2008년 88.0%에서 2015년 91.4%, 2021년에는 98.3%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종별로는 간호직의 경우 2008년 이후 전 기간에 걸쳐 남성임금 대비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며, 사무행정직은 2011년부터 남성임금을 넘어섰고, 간호조무직도 2015년과 2021년에 100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것은 직종별로 남성과 여성의 근속분포 구성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동일근속구간끼리 비교할 경우 전혀 다른 양상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간호직의 경우 여성의 상대임금이 남성과 동등수준 이상이 되는 것은 2010년 시기에는 근속 6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2021년의 경우에도 근속 1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무행정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임금이 높은 것은 24년이상 근속구간에서만 나타났으며, 간호조무직도 2021년 여성임금이 남성보다 높은 구간은 1년 초과~3년 이하 단 하나 구간만 해당되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영영사 등이 포함되는 보건직의 경우 여성임금은 모든 근속구간에서 남성임금에 비해 80~90%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기능운영직의 경우에도 20년이상 근속구간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임금 대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과밀한 교대제노동과 장시간노동으로 조기이직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기근속 근무자의 구성 비중이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은 상황으로, 직종별로 근속기간의 실질적인 분포를 고려할 경우 극히 일부 직종에서만 여성의 상대임금이 남성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직종간에도 성별 임금격차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과 관련해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개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제대로된 제도를 마련해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 30조 3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정부는 산별교섭 포함 다양한 교섭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초기업 노사관계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성별임금 격차는 물론 기업간 규모간 고용형태별 격차를 해소해나가야 함을 제언했다.

4) <뉴스기사> kbs뉴스 2021.06.01. [여심야심] 이준석이 쏘아 올린 ‘모든 할당제 폐지’...공정인가 소외인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지율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모든 할당제 폐지’ 공약을 두고 당 대표 후보들 간 설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 무대의 배려 대상이던 여성·청년에 대한 가산점과 할당제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후 주기적으로 방문해 구애하던 호남 지역에 대한 할당제도 마찬가지로 폐지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대신 ‘공정한 토론 배틀’로 경쟁을 붙여 당의 인재를 뽑겠다는 게 이 후보가 내놓은 할당제 대안입니다. 이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할당제 공약에 어떤 보편적 사람들이 가슴이 뛰겠는가”라며 “실력만 있으면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정함을 보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MBC 백분토론에서는 할당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나경원과 주호영 후보를 향해 “호남과 여성, 청년 할당제의 합집합을 내보니까 67% 정도에 해당한다”며, “열심히 준비한 사람을 여성과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해도 되겠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의 주요 지지 기반이 안티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형식적 공정을 중시하는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인 것과, 국민의힘 대다수 당원이 호남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공약은 어찌 보면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대구에 방문해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에 가면 길바닥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건 모두 오세훈 시장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성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박한 표를 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여성들을 선택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 궁금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다른 당 대표 후보인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오히려 이 후보가 외면하고 있는 여성·청년·호남 인재에 대한 할당제 또는 우대 정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 나경원·주호영, ‘청년·여성·호남’ 배려 정책 강조...“사다리 걷어차기 안 돼”

나경원 후보는 기존의 여성 공천 할당제 유지와 함께 청년 할당제 확대, 호남 출신 내각 30%를 공약했습니다. 나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굉장한 실력주의를 내세우는데, 실력주의만으로는 진정한 공정을 이루기 어렵다”며 “여성 할당제의 경우 도입됐어도 아직 기회가 공정하지 않고, 2030 남성들 분노의 경우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담론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본인은 청년할당제 특혜를 받아 국회에 입성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청년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후보 측 또한 여성의 정계 진출을 위한 할당제 유지와 더불어, 모든 임명직 당직에 청년을 별도로 임명하는 2030 청년 당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없다는 각오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약에도 호남·청년 의무할당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후보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한국의 정치 지형과 공적 영역에서 남성과 기득권의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진정한 공정은 사회적 약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21대 국회, 여성 19%, '45세 미만' 청년 6% … 여전한 소수자 문턱

실제 21대 국회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이 역대 최다 입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약 19%를 차지합니다.

선거법상 청년을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해 공천 가산점을 주는 현실에도, 지역구에서는 24명이 후보로 나서서 10명이 선출됐고, 비례대표로는 8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함께 '세대 교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뛰었던 초선 김웅, 김은혜 의원이 이준석 후보를 향해 '공정' 대한 지적을 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웅 의원은 “이준석처럼 성공하지 못한 청년도 자유롭게 입당해 당직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 소수자 할 당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은혜 의원 또한 “완전한 자유경쟁이 온전한 공정이 되는 것은 상위 1%의 리그에서만 가능하다. 지독한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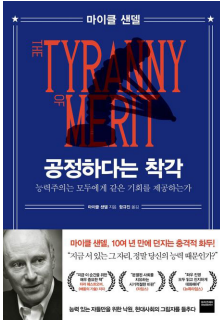
■ 국민의힘 당헌·정강·정책과도 반대…이준석 대표된다면 개정 1년도 안 돼 수정되나?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최근 개정된 국민의힘의 당헌·정강·정책과도 결이 크게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년간 황교안 전 대표 당시의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움직였고, 지난해 8월에 개정된 정강·정책 10대 과제에 ‘양성 평등의 사회’를 담았습니다.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때 스스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정치 등 공적 영역에서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 동수를 지향한다” 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당헌에는 지역 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출신 25%를 확보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이 담긴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남 동행 특위를 발족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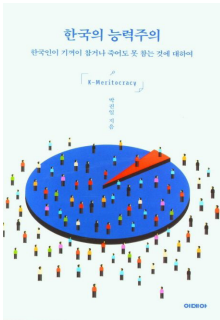
만약 이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된다면, 그래서 ‘할당제 폐지’를 공약대로 추진한다면 당헌을 바꾼지 불과 4개월 만에, 정강·정책을 바꾼지 10개월 만에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수정되는 셈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소외로 번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저자(글) · 함규진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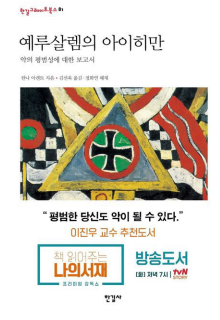
책 제목을 직역하면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 박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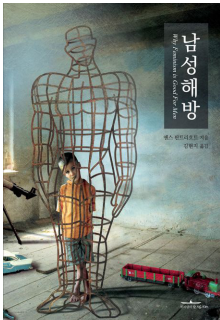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한국인 불편한 진실...한국인의 64.8% 불평등 찬성, 12.4%만 평등 찬성 시험, 보상, 능력, 무임승차, 개천 용, 억울하면 출세하라! 능력에 따른 차별, 능력주의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보고서이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저자 : 한나 아렌트 저자(글) · 김선욱 번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이히만의 재판에 대한 보고를 통해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아이히만의 사례를 통해 악의 평범성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드러내며, 보편적 유대인 개념이 갖는 허상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악의 평범성 개념으로 어떻게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타자중심적 윤리로 돌아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남성해방>

엔스 판트리히트 저자(글) · 김현지 번역

“남성해방이 답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남성이 남성성의 위기를 느끼며 강한 남성으로 돌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을 향한 공격성을 내포하는 이런 움직임은 보며 저자는 과연 남성성이란 무엇이고, 여성과 남성은 적대해야만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

1. 동영상 자료



1) 나만 아니면 돼?

<동영상> 세상을 바꾸는 티핑 포인트 “ [테드] 운동이 시작되는 방법 ”
<https://www.youtube.com/watch?v=vZKUJrBK7A>

2) 그게 진짜 네꺼야? 너의 기본템은?

<동영상> : 부모소득 따라 가는 대학, 명문대일수록 저소득층 비율 낮아
https://www.youtube.com/watch?v=0lpMochy_K4

2. 웹사이트
참고자료
모음



1) 나만 아니면 괜찮아?

- “왕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시사뉴스피플> 기사 (2011.02.28.)
<https://www.inewspeo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7>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가해자-피해자 도식을 넘어.” <주간경향> 1521호 (2023.04.03.)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303241250541&code=115>
- [다시 읽는 명저] 타인의 입장과 자신 행위에 대한 생각포기는 최악..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으로 생각의 무능력 비판,” <생글생글> 662호 (2020.05.04.)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0042942121>
-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 <콩나물신문> 기고문 (2022.02.18.)
<https://www.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68>
- 지난해 임대료 상승1위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대응구역 8.6배 확대” <경향신문> (2023.08.01.)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8011402001#c2b

2) 불편함 어디까지 참아야해?

- 누가 광화문 횡단보도를 복원했나, 시민의 힘이 만든 쾌거” <그린 코리아 포럼>
<https://greencore.kr/aaa6/7>
- 광화문의 횡단보도는 언제 만들어진걸까?” <녹색교통운동> (2016.12.08.)
<https://greentransport.org/news/?q=YToy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Nzt9&bmode=view&idx=7060779&t=board&category=516059qG14>

3)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 교차성과 돌봄, 그리고 영 케어러” <생태적지혜> (2021.10.17.)
<https://ecosophialab.com/%EA%B5%90%EC%B0%A8%EC%84%B1intersectionality%EA%B3%BC-%EB%8F%8C%EB%B4%84-%EA%B7%B8%EB%A6%AC%EA%B3%A0-%EC%98%81-%EC%BC%80%EC%96%B4%EB%9F%AC/>

- ‘교차성’은 차별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인가?

<마르크스21> 16호(2016 10~11월)

<https://marx21.or.kr/article/204>

- “히잡을 쓰든 말든 내 맘대로 할 거야.” <한겨레> (2022.10.2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3811.html

4) 그게 진짜 네꺼야? 너의 기본템은? (능력주의와 공정)

- 보건의료노동자 성별 임금 차별 ‘심각’...18년 근속해야 男노동자와 비슷

<메디포뉴스> (2023.03.09.)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76339>

- [여심야심] 이준석이 쏘아 올린 ‘모든 할당제 폐지’...공정인가 소외인가 <kbs>
(2021.06.0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198992>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과 사례 링크를 볼 수 있어요!!

신호등토론지

[전체토론]

신호등 토론 1





갈등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생각은?

-  (파랑)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빨강) 매우 불편하고 싫은 느낌
-  (노랑) 나와 관계된 것이 아니면 별 느낌 없음
-  (초록) 기타, 집이나 교실, 학교 모든 갈등이 불편하고 무섭다 등

[모둠별 토론]





신호등 토론 2

갈등이 있을 때 주로 나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파랑) 주로 내 의견을 관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빨강) 관계를 생각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거나 회피하게 된다
-  (노랑) 중간 지점의 해결책을 생각하고 중재하려 한다
-  (초록) 기타,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한다

신호등 토론 3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파랑)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입하고 노력해야 한다
-  (빨강) 시민들 각자 해결하도록 둔다
-  (노랑)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론장이나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한다
-  (초록) 기타, 갈등이 심할 때만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 등

교실 내 갈등 역할

가해자	가해자의 추종자1
가해자의 추종자 2	가해자의 추종자 3
피해자	방관하는 친구 1
방관하는 친구 2	방관하는 친구 3
방관하는 친구 4	선생님

교실 내 갈등 역할

사장님(가해자)	사장님 가족 1 (가해자의 추종자 1)
사장님 가족 2 (가해자의 추종자 1)	피해자 (알바비를 못받는 친구)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	방관하는 사람 1 (다른 알바생)
방관하는 사람 2 (다른 알바생)	피해자의 부모님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	시청직원

기사작성양식

기사제목
(headline)



기사내용

이 기사를 통해 전하고 싶은 뉴스와 메시지를 기사형태로 작성

년 월 일

기자이름 :

우리들의 약속 서약서

성차별과 혐오가 없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 만들기

1) _____

2) _____

3) _____

나는 반드시 위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이름 : (서명)

| 펴낸이

공동 기획 : 이종민 노희찬재단

유일영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박종희 시흥시 정왕청소년문화의집

정하윤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집 필 : 정하윤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편 집 : 권복희 민주시민교육 결

조 영 민주시민교육 결

| 펴냄 : 민주시민교육 결

| 발행 : 2023. 1. 15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4층

대표 번호 | 010-7600-3934

이메일 | kdewithyou.2018@gmail.com

홈페이지 | www.결에.net

이 워크북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